

2018년 생명전을 가지면서

‘백제를 찾아서’라는 주제전이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동양의 고대문화에 대한 현대적 표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8 생명전’이라는 테마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백제금동대향로와 고구려벽화>라는 소주제로 고구려와의 비교를 통하여 백제만의 특질과 고구려와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주제전을 열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이러한 주제 전시의 연장선으로 고대 문화에 공통적으로 소재화 되고 있는 ‘생명’이라는 주제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상들의 생명에 대한 해석으로 보여주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본질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가오므로써 우리만의 미감과 특질이 조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동양의 전통미술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원(祈)을 소주제로 삼아 한국과 일본에서 조형활동을 통해서 미술의 치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통한 기원적 활동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왔던 강한 생명력의 표현이며 현재를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측에서의 민화는 사물을 묘사하는데 의미를 두지 않고 대상의 상징성을 빌어 자신과 타인을 위한 염원과 기원을 표현한 한국의 전통미술입니다

예를 들면 모란꽃은 부귀를, 연꽃은 다산을, 원앙새는 부부금슬을, 나비와 바위는 장수를, 꽃병은 평안을, 약리도는 장원급제를 기원했던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작품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치유적 의미로 재창조된다는 데 이번 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테마에 대한 한국의 작가들과 일본작가와의 교류전을 통하여 지역에 따른 재창조의 다름과 공통점을 찾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는 것에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주제 전을 위하여 작품을 출품하신 국내외 작가들과 이번 전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논산시 백제군사 박물관, 일본 이즈미병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11.

2018年「生命展」の開催にあたり

「百濟を探し求めて」とのテーマでおこなってきた展示が今年で21回目を迎えました。今回は東洋の古代文化に対する現代的表現を模索するために「2018生命展」というテーマで開催する運びとなりました。その間、私たちは「百濟金銅大香爐と高句麗壁画」という小テーマで高句麗との比較を通じて百濟だけの特質および百濟と高句麗との共通点を知るためのテーマ展示を開いてまいりました。

2005年からはこうしたテーマ展示の延長線上にあるものとして古代文化に共通的に素材として扱われている「生命」というテーマで展示を開催しています。

私たちはこうした私たちの祖先たちの生命に対する解釈として示されている生命力の本質が現在を生きる私たちにも影響をあたえ、私たちだけの美的感覚と特質が造形的に表出していると考えます。

特に今回の展示は東洋の傳統美術の特質とも言える「祈り」を小テーマとし、韓国と日本で造形活動を通じて美術の治癒的活動をおこなっている専門家のかたがたの作品を展示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美術による「祈り」的な活動は私たちの生を支えてきた強い生命力の表現であり、現在を生きる私たちにとっても非常に重要な模索であると考えます。

その中でも韓国における「民画」は事物を描寫することに意味を置くのではなく、対象の象徴性を借りて自身と他人のための願いと祈りを表現した韓国の傳統美術です。

例えば牡丹の花は富貴を、蓮の花は多産を、おしどりは夫婦の仲睦まじさを、蝶と岩は長壽を、花瓶は平安を、躍鯉図は科挙における主席合格を祈る作品です。こうした意味をもつ作品を現在を生きるこの現時点で治癒的な意味で再創造することに今回の展示の意味があります。

さらに、これにとどまらず同じテーマに対する韓国作家と日本の作家との交流展を通じて地域による再創造のちがいと共通点を知るための新たな契機となるという点でも意味があると思えます。

今年のテーマ展示のために作品を出品して下さった国内外の作家の皆様と今回の展示を実現するためにご協力下さった論山市百濟軍事博物館、日本のいずみ病院の関係者の皆様にご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る次第です。

2018. 11

朴 完 用
(韓国・建陽大学校教授、亜細亜新美術交流會會長)